

기 조 논 문

■강용원(고신대학교)

• 통전적 기독교죽음상담을 위한 시론(試論)



www.kci.go.kr

통전적 기독교죽음상담을 위한 시론(試論)

강 용 원 *

국문초록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죽음은 기독교상담이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이다. 죽음에 관한 사역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상담자는 죽음에 대한 성경적, 심리학적 이해를 기초로 사람들이 애통과 절망을 딛고 회복과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는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의 의미를 근거로 왜 죽음이 기독교상담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지를 밝히고, 죽음에 관한 기독교상담의 일반적인 원리를 다루었다. 특별히 죽음과 관련된 두 가지 영역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기독교상담과 남은 사람을 위한 기독교상담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검토와 실제적 원리를 논의하였다. 무엇보다도 연구자는 죽음에 관한 기독교상담이 통전적인 접근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인적 통전성, 관계적 통전성, 시간적 통전성을 기초로 죽음에 관한 기독교상담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죽음에 관한 기독교상담은 목사를 포함하는 기독교상담사역자들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부여된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중심단어 : 기독교죽음상담, 기독교상담, 죽음과 죽어감, 사별, 슬픔상담, 통전적 사역

I. 여는 글

죽음은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면서 기독교상담이 다루어야 할 중요

• 논문 투고일: 2009년 3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09년 4월 24일

• 게재 확정일: 2009년 5월 11일

* 고신대학교

한 연구 주제이다. 어쩌면 기독교상담이 다루어야 하는 모든 문제들은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문제와 관련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성경적인 죽음의 이해를 기초로 기독교상담이 왜 죽음의 문제를 핵심 주제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생각하고, 죽음상담의 중요한 두 주제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상담과 남은 사람을 위한 상담을 단계론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통전적 기독교죽음상담의 정립을 위한 시도로서 전인적 통전성, 관계적 통전성, 시간적 통전성과 죽음상담의 관련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기독교 상담과 죽음

1) 죽음의 성경적 의미

인간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지만,¹⁾ 여기서는 죽음의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시하였다.²⁾ 그러나 어느 것도 궁극적인 해답은 되지 못한다. 성경은 죽음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면서 근본적인 해답을 주고 있다.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박노권, "기독교의 죽음이해에 대한 상담학적 고찰", 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기독교 상담학회지」 10 (2005. 10), 171-196; 김균진, "죽음에 대한 의식의 차원들",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현대와 신학」 26 (2001): 58-82.

2) cf. G. Brillenburg Wurth, "Pastoral Care in Connection with Death," in *Christian Counseling*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2), 267-279; Platon은 육체는 비록 죽고 분해되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가르침으로써 인간의 불멸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였다. Kant는 내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삶이 현세로 끝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묘사하였다. Heidegger는 우리의 삶 속에는 이미 죽음이 들어와 있다고 말하였으며, Hegel는 인간의 개별적인 삶과 죽음을 통하여 인류라고 하는 종족은 유지된다고 말함으로써 죽음의 위력을 경감하려고 시도하였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신체와 영혼의 이원론적인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에 관한 성경적 견해는 통전적이며 이원론을 거부한다.³⁾ “죽음은 존재나 존속의 문제가 아니다. 또 영혼이나 육체의 문제만도 아니다. 우리는 전인(全人)을 생각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존재를 받았으므로, 소위 죽음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시 139:7-12). 다만 존속이 약속일 수도 있고, 위협일 수도 있다. 즉 언약의 구조 속에서 인간을 보아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평화 아래 존속하는 것은 생명이다.”⁴⁾ 이것은 죽음을 단순한 분리로 생각하기 보다는 일종의 변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인간의 존재방식의 전환이다. 죽음에서도 인간은 존속하나, 죽음 이전이나 부활 뒤의 존재 방식과는 다른 변형 과정에 있다.”⁵⁾

둘째,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필연적이며 보편적임을 가르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히 9:27). 모든 인간은 이 점에 있어서 동등하다(시 49:10).

셋째, 성경은 죽음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왔으며, 또한 죽음을 죄의 형벌이라고 적극적으로 시사함으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창 2:17, 3:19; 롬 5:12, 17, 6:23; 고전 15:21). 또한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며(시 90:7, 11), 심판이며(롬 1:32), 징죄며(롬 5:16), 저주임을 말해 준다(갈 3:13). 죽음은 역사의 종말에 패망될 적이며(이사야 26, 다니엘 12), 마지막 원수이다(고전 15:26). 죽음은 선한 창조의 일부는 아니다. 인간이 죽을 운명으로 피조 되었고, 죽음도 물질적 유기체에 이미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⁶⁾

넷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

3) “성경은 인간을 전인으로 보나, 죽음에 의한 일시적 분리를 말하며, 영이 전인을 대신하는 존재 상태는 잠정적이고 일시적이며 불완전하다.” 유해무, 『개혁신학의학: 송영으로서의 신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602. 영혼불멸성에 관한 논의는 그의 책 598-601을 참조하라.

4) 유해무, 『개혁신학의학』, 594.

5) 유해무, 『개혁신학의학』, 597.

6) 유해무, 『개혁신학의학』, 596-597.

고,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통해 새 생명에 이르는 소망을 갖는다(요 11:25-26; 고전 15:20). “그리스도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죽음의 본성과 성격을 변화시키며,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러한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은 결국 죽음의 최종성과 치명성을 빼앗아가는 부활에 의해서 입증되었다.”⁷⁾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의미를 새로운 차원에서 열어 주었으며,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된다.

다섯째, 신자들은 이미 의롭다하심을 받고 더 이상 율법의 형벌 아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자의 죽음이 비록 형벌적인 모습을 취하기는 해도 본질상 형벌적인 요소는 이미 제거되었다.⁸⁾ 그러므로 신자가 맞이하는 죽음은 그의 영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도구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과 시련의 정점이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지만, 타락하지 않았다면, 존재 변형이 다른 방식으로 왔을 것이다. 무죄 상태는 영광의 상태가 아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이제는 죽음을 통하여 온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도 당신의 작정을 실현하신다.”⁹⁾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전한 생의 출발이 된다. 신자의 죽음은 신자의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고(히 12:23; 계 21:27), 그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는 것이다(롬 8:11; 살전 4:16-17; 고후 5:8).

2) 기독교상담의 개념과 목표

기독교상담이라는 용어 사용의 최근의 용례들을 보면, 목회상담이라는 용

7) Daniel J. Louw, *Illness as Crisis and Challenge: Guidelines for Pastoral Care* (London: Orion, 1994), 173.

8)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2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왜 우리는 또 죽어야 하는가?” 답: “우리의 죽음은 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죽음이요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다.”

9) 유해무, 『개혁교의학』, 598.

어와 대립적인 것으로 주로 기독교심리치료자의 상담이나 목회자가 아닌 일반 그리스도인 상담자의 상담을 일컫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기독교상담의 통전성을 감안하면서 기독교상담을 목회상담과 다른 여러 형태의 기독교적인 상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¹⁰⁾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기독교상담전문가, 기독교심리치료자, 기독교사 및 자원봉사자 등에 의해서 수행된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은 가시적 교회의 영역을 넘을 수도 있으며, 신자만이 아니라 비신자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¹¹⁾ 죽음사역과 관련하여 목사는 교회가 수행하는 죽음사역에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목사가 죽음에 관한 모든 사역을 독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목사는 한 사람의 기독교상담자로서 그 사역을 다양한 전문가와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한다.

기독교상담의 목표는 통전적인 삶의 회복에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적, 신앙적 차원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기독교상담의 목표가 여기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은 기독교상담을 통전적으로 보는 관점과는 맞지 않다. 일반적으로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행동, 태도, 가치관 및 자기 이해를 수정함으로써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고, 위기의 때에 자신의 내적이고 환경적인 자원을 잘 이용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의 방도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상담의 목표도 일반 상담의 목표와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또한 기독교상담은 일반상담과는 다른 특별한 목적, 즉 영적 성장을 궁극적 목적으로 가진다. 이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삶의 자세를 가지도록 인도하는 것이

10) 강용원, "기독교상담의 성격과 구성",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서울: 기독교, 2004), 375; 다니엘 로우는 목회상담과 다른 신자들에 의한 상담의 구분은 기능상의 구분이지만 그 본질이 다른 것은 아님을 말하였다. 목회상담과 다른 상담을 구분하는 것은 기능적인 구분(functional distinction)이지 성격상의 구분(distinction in character)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Daniel J. Louw, *A Pastoral Hermeneutics of Care and Encounter* (Wellington: Lux Verbi.BM, 1998), 260.

11) 강용원, "기독교상담의 성격과 구성", 375-376.

다.¹²⁾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은 인간이 가진 작은 문제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의 상호관계에 관심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기독교상담은 내담자가 가지고 오는 직접적이고도 다양한 문제들을 취급함과 동시에, 궁극적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 전인적 회복에 관심을 갖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¹³⁾

3) 기독교상담의 주제로서의 죽음

기독교상담이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상담은 삶과 죽음의 의미에 관한 모든 주제에 대해서 대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죽음에 관한 다양한 사상과 논의들이 죽음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음의 엄정성과 그것의 바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자는 죽어가는 사람과 남은 사람을 위한 상담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일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둘째, 기독교상담자는 한 사람의 신자로서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다가 가고자 하는 신앙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¹⁴⁾

셋째, 지상의 삶을 의미 있게 영위하고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중요한 관심과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기독교상담은 언제나 죽음의 문제를 의식한다. 기독교적인 삶의 의미는 기독교적인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함으로써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의 모든 문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죽음과 슬픔

12) Gary Collins, ed., *Helping People Grow—Practical Approaches to Christian Counseling* (Ventura: Vision House, 1982), 325.

13) 자세한 논의는 강용원, “기독교상담의 성격과 구성”, 378-381을 참조하라.

14) David K. Switzer, *The Ministry as Crisis Counselor*, 김진영 역. 『위기상담가로서의 목회자』(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207.

의 경험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고, 언젠가는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죽음 사역은 삶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전 생애의 과정과 연관되는 것이다. 죽음은 단지 죽음을 맞는 그 순간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¹⁵⁾

넷째, 기독교상담은 인간이 만나게 되는 각종 위기와 고통의 문제에 대답하여야 한다. 죽음은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이며 아픔이다. 죽어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남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삶의 기초를 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다.¹⁶⁾ 기독교상담은 이러한 인생의 위기에 적절하게 개입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새롭게 탐구하며 재구성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교회의 현실은 죽음에 관한 기독교상담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를 요청한다. 현실적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죽음의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없이 두렵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경우에 상실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슬픔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가중되는 괴로움을 당한다. 따라서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과 남은 사람을 위한 기독교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고 인적자원을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15) “우리는 평소에 삶을 죽음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사고할 수 있는 훈련을 쌓아야만 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한 인간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인간실존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게 해 주어 좀 더 넓고 관대한 안목으로 인생을 관조하게 해 주리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와 가까운 것으로 보는 적극적인 자세로서 그 의미를 추구하고 받아들인다면, 죽음은 차라리 인간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사미자, “죽음의 문제에 관한 소고”, 『교육교회』 111 (1985): 255.

16) “그리스도인들은 상실감과 관련된 문제와 싸울 때 자신의 신앙적인 확신을 재평가 하게 된다... 많은 신앙인들이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신앙과 인격의 깊이를 더해 가는 사람들도 있다.” 최재락, “사별과 목회상담”, 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기독교상담학회지』 7 (2004. 7): 314.

2.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상담

1) Kübler-Ross의 단계론과 그 평가

기독교상담자는 죽음의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죽음의 과정에 대한 괄목한 연구는 Elisabeth Kübler-Ross에 의한 것이다. 그녀는 죽음의 과정을 다섯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정(denial), 분노(anger), 타협(bargaining), 우울(depression), 그리고 수용(acceptance)이다.¹⁷⁾ 그녀의 연구는 급작스런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기되는 죽음'에 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Kübler-Ross의 연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¹⁸⁾ 첫째, 죽음과 대처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아직 살아있으며, 그들이 다루기를 원하는 미해결 요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둘째, 죽음과 대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그들 자신의 요구를 함께 확인하기 전에는 효과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기 위하여 죽어가는 자나 죽음과 대처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그녀의 공헌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에 대한 강조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 그녀는 말기 임종환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¹⁹⁾

Kübler-Ross의 노력은 죽어가는 사람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 Charles A. Corr는 "비록 우리는 퀴블러-로스의 저작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녀의 저작에 기대서는 안 된다. 단계에 기초한 모델의 부적합성을 넘어서야

17) Elisabeth Kübler-Ross,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1969).

18) Charles A. Corr, "Coping with Dying: Lessons that we should and should not Learn from the Work of Elisabeth Kübler-Ross," *Death Studies* 17 (1993): 69-83.

19) Robert J. Kastenbaum,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 (Boston: Pearson, 2007), 136.

만 한다.”²⁰⁾고 말하였다. 이 책이 1969년에 출판된 이후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모델이 부적합하고 피상적이며 잘못된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대중적으로 넓게 퍼져있던 주장들은 학계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다.²¹⁾ R. J. Kastenbaum에 의해 이루어진 Kübler-Ross의 단계이론에 대한 진지하고도 철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²²⁾

첫째, 이러한 단계들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때때로 부정하고 분노하며 타협하거나 우울해 진다. 그러나 그러한 기분 또는 반응이 실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단계로 관련지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죽어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단계1에서 단계5까지 거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이 단계들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환자들은 타협하고 우울해 하면서 동시에 분노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환자는 부인에서 수용으로 갈 수도 있고, 우울과 분노가 뒤에 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앞둔 행동들이 보편적이고 상호배타적이며 선적(線的)인 5가지 단계보다는 더 복잡한 것이라고 결론지어야 한다.²³⁾

셋째, 방법론의 제한점들이 확인되지 않았다. 죽어가는 과정에 다섯 단계가 있다는 결론은 Kübler-Ross 한 사람의 정신의학적 임상면접에 기초해서 실시되고 해석된 결과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가설적인 경향성은 볼 수 있어도 이것이 증명된 이론이 되기는 부족하다. 더욱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 앞에서 말한 것과 행동한 것만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좋은 표집이 아닐 수 있다.

넷째, 기술(description)과 처방(prescription)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 단

20) Charles A. Corr, "Coping with Dying: Lessons that we should and should not Learn from the Work of Elisabeth Kübler-Ross," 81.

21) Charles A. Corr, Clyde M. Nabe and Donna M. Corr, *Death & Dying, Life & Living* (Pacific Grove, CA: Brooks/Cole, 1997), 153

22) Robert J. Kastenbaum,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 134-135.

23) Michael R. Leming & George E. Dickinson, *Understanding Dying, Death, and Bereavemen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5), 56-57.

계이론은 대체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와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가의 구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녀의 이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환자가 스케줄대로 부정에서 수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만일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의 표시라고 보았다. 이러한 기대는 상황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수용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섯째, 가정된 죽음의 단계에 대한 선호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의 전체성(totality)이 무시된다. 가정된 보편성은 죽어가는 사람을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온전한 한 인간으로 보기 보다는 예정된 경로를 따라 옮겨가는 일종의 표본으로 취급하게 된다.²⁴⁾

여섯째, 환경의 자원, 압력, 특성들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다. 임종에 처한 환자가 부정을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성격이나 혹은 가정된 단계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죽음을 거부하는 의학적 환경'에 대한 사회의 암묵적 규칙들에 순응하는 노력일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Kübler-Ross의 단계론이 모든 문화권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²⁵⁾ 여기에 덧붙여 Kübler-Ross의 이론이 기초로 하고 있는 철학은 기독교상담자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녀의 단계론은 개별적인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죽음을 통해서 자기성취를 이루려는

24) 이러한 단계의 개념은 환자의 관점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자의 타협 행동은 생명 연장에 대한 소망이라기보다는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지지를 얻어야 할 필요에 의한 동기 때문일 수 있다. 우울은 임종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기보다는 환자의 신체적 기능저하가 너무 심각한 때문일 수 있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 환자의 힘이 점점 쇠약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심리적으로 우울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Michael R. Leming & George E. Dickinson, *Understanding Dying, Death, and Bereavement*, 56.

25) 일본사람들의 임종을 연구한 가시오끼 데쓰오(相木哲夫)는 15년 간 일본의 암 환자 400명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일본 사람들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타협의 단계가 없다는 점이다. 김기복, "죽음과 임종-그 목회관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자하기신학세미나 강의집」 10 (1990), 126-127.

데 그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인간주의적인 철학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⁶⁾

2) 대안적 모델들

(1) 죽어감에 대처하는 과제-기반적 모델(A Task-Based Model for Coping with Dying)

Corr는 단계이론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였다.²⁷⁾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처해야 하는 4가지 과제(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들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과제(task)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의 요구(need)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처하면서 다루어야 할 일들을 의미한다. 이 모델이 목표로 하는 것은 원칙상 죽음에 대처하고 있는 사람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중점적인 강조를 두는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노력이 가능하지 않을 때조차도(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환자의 관점에서 과제들을 바라보고 적절하게 그들의 노력을 조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다. Corr는 죽음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네 가지 기초적인 과제 영역을 신체적 과제(몸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심리적 과제(안전하고 통제되고 있음과 아직 살아야 할 생이 남아있음을 느낌), 사회적 과제(다른 사람들, 그룹들 및 어떤 명분(cause)에 가치 있는 애착을 지속하는 것) 및 영적인 과제(의미를 발견

26) 박노권은 그녀의 이론을 윤리적 이기주의로 부른다. 박노권, "기독교의 죽음이해에 대한 상담학적 고찰", 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기독교상담학회지」 10 (2005. 10): 184.

27) 그는 연속되는 두 논문을 통해서 이 모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모델을 발전적 대처 모델(A Developmental Coping Model of the Dying Process)이라고도 불렀으나, 그 자신이 공저로 쓴 책 *Death & Dying, Life & Living*에서는 이를 과제-기반적 모델(A Task-Based Model for Coping with Dying)로 정리하고 있다. Charles A. Corr, "Coping with Dying: Lessons that we should and should not Learn from the Work of Elisabeth K?bler-Ross," 69-84; "A Task-based Approach to Coping with Dying," *Omega* 24 (1992), 81-94; Charles A. Corr, Clyde M. Nabe and Donna M. Corr, *Death & Dying, Life & Living*, 155-160.

하거나 혹은 확인하는 것, 연대감, 초월 및 희망을 가지는 것)로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서, 가능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전과 스트레스에 대처하게 하는 좋은 접근이며, 동시에 죽어가는 과정의 경험과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는 유용한 접근법이다.

(2) 모델로서의 죽어가는 사람의 현실(The Dying Person's Own Reality as the Model)

또 다른 하나의 대안적 이론의 핵심에는 환자 자신의 현실이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관찰자의 구조전환, 즉 외부자가 죽음의 과정에서 의미가 있거나 유용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단계모델 또는 발달과제로부터의 전환이다. 오히려 그 과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가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말기 임종환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은 근년에 고조되었다.²⁸⁾

(3) 다중관점 접근(A Multiple Perspective Approach)

다중관점 접근은 죽어가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죽음의 과정에서 독특한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접근은 죽음에서 경험하는 것과 삶에서 경험하는 것의 유사성으로부터 죽어가는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더 많은 지식을 얻어 낼 수가 있다고 본다. Kastenbaum은 17가지의 죽어가는 사람의 상황에 대한 부분모델(partial models of the dying person's situation)을 가정하였는데, 이것은 죽어가는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안한 부분모델의 예를 보면, 한정된 활동, 제한된 에너지, 손상된 신체의 이미지, 영향력의 상실, 무능력, 무효과,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 시간 불안, 수행 불안, 상실과 분리, 위태로워진 관계 등이다.²⁹⁾

28) Robert J. Kastenbaum,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 136-137.

29) Robert J. Kastenbaum,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 137-140; 여기서 손상된 신체의 이미지 모델을 예로 들어본다. 우리의 걱정은 우리의 신체가 예전과 같이 일을 수행해 내지 못할 때 더 깊어진다. 이제는 예전 같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시

이상의 대안적 모델들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데 그 강점이 있으며, 동시에 죽어감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 우리는 단계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죽어가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그 과제와 도전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 남은 사람을 위한 상담

1) Kübler-Ross의 단계론의 적용

인간의 생애에서 사별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로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 사별의 슬픔을 다룬 고전적인 연구는 Erich Lindemann에 의한 것으로, 그는 10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슬픔과 비정상적인 슬픔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였다.³⁰⁾

Kübler-Ross의 연구가 나온 이후 많은 기독교상담자들은 그것을 슬픔상담에 적용하여 왔다. 원래 그녀의 연구는 사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것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시간에 쫓기는 임상가들과 기독교상담자들에게 주는 '즉각적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번져나가 다양한 문제들에 적용되었다.³¹⁾

H. Smith는 사람들이 겪는 슬픔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사하는 시각적, 생물학적 피드백을 경험하면서 경미한 수준에서 심각한 수준까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죽어가는 사람은 점점 더 심해지는 자기 이미지와 자신감에 해로운 피드백을 받게 된다. 신체 이미지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돕기 원할 때 설정할 수 있는 건설적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

30) Erich Lindemann, "Symptomatology and Management of Acute Grief,"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1(1944): 141-148.

31) Charles A. Corr, Clyde M. Nabe and Donna M. Corr, *Death and Dying, life & living*, 152.

단계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모든 사람은 독특한 나뉠대로의 '슬픔의 지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독특한 슬픔은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²⁾

David Switzer 역시 Kübler-Ross의 단계론을 슬픔의 단계에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경계한다.³³⁾ 물론 죽음의 단계와 슬픔의 단계에 유사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며, 특히 예견된 슬픔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슬픔의 과정에 Kübler-Ross의 단계를 적용하게 될 때, 그녀가 죽음의 과정에서 원래 설명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측면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Kübler-Ross의 단계를 슬픔에 관한 이해나 상담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참된 이해를 방해하고, 그들에게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Orville Evans는 Kübler-Ross의 단계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슬픔 상담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제시한다.³⁴⁾ Evans가 제시한 가설적 대안모델은 논리적 비약이 많고 적용에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사별한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기독교의 덕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가 비성경적이거나 영적이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단계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이러한 단계에서 어떻게 성경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는 (1) 부정에서 신앙으로(from denial to faith), (2) 분노에서 용서로(from anger to forgiveness), (3) 타협에서 복종으로(from bargaining to submission), (4) 우울에서 소망으로(from depression to hope), (5) 수용에서 사랑으로(from acceptance to love)의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32) Harold I. Smith, *When your People are Grieving*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2001), 36-37.

33) David K. Switzer, *The Ministry as Crisis Counselor*, 219.

34) Orville Evans, "A More Excellent Way,"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7, no. 3 (1984): 34-49.

2) 다른 접근들

(1) Wayne Oates

Oates는 연속적인 슬픔의 단계를 여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1) 상실에서 오는 충격, (2) 충격에서 오는 마비, (3) 공상과 실재의 투쟁, (4) 슬픔의 홍수돌파, (5) 선택된 기억과 통렬한 아픔, (6) 상실의 수용과 삶의 확인이다.³⁵⁾ 오츠의 단계는 다소 혼란스럽다. 4, 5단계는 매우 유사하여 그렇게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어색해 보인다.

(2) G. Westberg

Westberg는 열 단계로 이 과정을 서술하였는데, (1) 충격, (2) 감정의 방출, (3) 우울과 외로움, (4) 고통, (5) 공황, (6) 죄의식, (7) 적대감과 후회, (8) 일상적인 활동으로 돌아오기 힘들, (9) 소망, (10) 실재를 확인하기 위한 투쟁이다.³⁶⁾ 그는 각 장의 제목을 단계로 취급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단계와 단계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구분이 모호하다.³⁷⁾

(3) Yorick Spiegel

Spiegel은 네 단계로 슬픔의 단계를 구분하였다. 그가 제안한 네 단계는 충격(shock), 통제(control), 퇴행(regression), 적응(adaptation)이다.³⁸⁾ 슈피겔은 사별자가 죽음을 수용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충격, 통제, 퇴행으로 정리하였고, 죽음의 수용 및 재조정과 그 후의 회복의 과정을 모두 적응 단계로 묘사하였다.

(4) C. M. Parkes

Parkes의 단계는 경험적인 연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는 22명의 미망인들이 그들의 남편과 사별한 지 한달, 석달, 여섯달, 아홉달, 그리고 열세달째 되는 때, 광범위한 개인면담을 시행하여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연구결과

35) Wayne E. Oates, *Anxiety in Christian Experience* (Waco: Word Books, 1955), 52-55.

36) Granger Westberg, *Good Grief* (Philadelphia: Fortress, 1962).

37) David K. Switzer, *The Ministry as Crisis Counselor*, 218.

38) Yorick Spiegel, *The Grief Process: Analysis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73), 62-83.

를 제시하였다.³⁹⁾ 첫 단계는 마비와 부정(numbness and denial), 둘째 단계는 갈망(yearning)이다. 셋째 단계는 혼동과 절망(disorganization and despair), 넷째 단계는 재조직(reorganization)이다.

Switzer는 Parkes의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⁴⁰⁾

첫째, 다른 상황 같으면 비정상적으로 취급될 만한 극심한 정도의 정서적인 혼란과 문제행동들이 정상적인 슬픔의 반응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초기에 충분한 슬픔이 표현되었을 때에 차후에 혼란 증상들이 현저히 경감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셋째, 13개월이 지난 후에도 슬픔의 과정은 계속되고 있었고, 애도의 과정이 종결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었다.

넷째, 슬픔의 과정은 어느 정도의 단계들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적인 해결점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슬픔의 단계들을 건너뛰려고 시도하거나, 당연히 실행해야 하는 내적인 심리적 과제와 외적인 사회적인 과제들을 수행하려 하지 않는 것은 슬픔의 과정을 왜방하고 문제의 해결 또는 재편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5) Daniel Louw

Louw는 슬픔의 단계를 다음 네 단계로 묘사한다.⁴¹⁾ 첫째, 혼동과 무질서의 단계(the phase of confusion and disorder), 둘째, 상실과 추구의 단계(the phase of loss and seeking), 셋째, 적응, 수용, 재조직의 단계(the phase of adaptation, acceptance and reorganization), 넷째,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단계(the lasting and continuing phase)이다. 로우의 앞의 두 단계는 파크스와

39) C. M. Parkes, "Seeking' and Finding' a Lost Object,"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 (1970): 187-201; "The First Year of Bereavement," *Psychiatry* 33 (November 1970): 444-467; David K. Switzer, *The Ministry as Crisis Counselor*, 220-222.

40) David K. Switzer, *The Ministry as Crisis Counselor*, 222-224.

41) Daniel J. Louw, *Illness as Crisis and Challenge: Guidelines for Pastoral Care* (Orion, 1994), 185-188.

유사하며, 적응, 수용, 재조직을 하나로 묶었다. 로우에게 있어서 특이한 점은 애도과정의 지속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

(6) 요약과 평가

위에서 살펴본 슬픔의 과정에 대한 접근들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슬픔은 과정이지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니다. 슬픔의 과정은 각 과정을 구별지어주는 특징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별자에게 슬픔의 속성과 과정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둘째, 한 개인이 순서대로 거쳐 나가야하는 그런 정형화된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슬픔이란 보편적인 경험인 동시에 개인적인 경험이다. 셋째, 슬픔의 과정을 잘 겪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돌봄의 형태를 통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슬픔과정의 진행 속도와 형태들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슬픔과 비언어적 감정들이 신속하게 충분히 표현되고,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진지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 여섯째, 슬픔과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반적인 기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일곱째, 단계적 서술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고, 사별자의 과제 혹은 요구가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별자의 상담에 있어서도 과정적인 모델과 과제 중심의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슬픔상담의 원리적 접근

(1) 슬픔상담의 목표와 과제

Theresa Rando는 슬픔상담의 목표를 고인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고인이 없는 환경에 재적응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²⁾ N. Wright는 슬픔작업을 ① 죽은자로부터 해방시키는 일, ② 죽은 자 없는 삶에 재조정하는 일, ③ 새로운 관계와 애착을 형성하는 일로 구

42) Theresa A. Rando, *Grief, Dying and Death: Clinical Interventions for Caregivers* (Champaign: Research Press, 1994), 18-19.

조화하였다.⁴³⁾ 그는 또한 슬픔을 '살아남음과 재건축'(surviving and rebuilding)⁴⁴⁾이라는 표현하면서 과거와 다리를 놓음(bridging the past), 현재와 함께 살아감(living with the present), 미래를 향한 길을 발견함(finding a path into the future)이라는 세 가지의 작업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사별자가 영향을 받는 다섯 가지 영역

슬픔을 통해서 공통으로 경험되는 것들은 몇 가지 영역으로 정리될 수 있다.⁴⁵⁾ (1) 신체적 영역: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피로, 식욕의 변화, 수면습관의 변화, 우울증 등이 나타난다. (2) 지적 영역: 집중곤란, 단기기억상실, 새로운 정보의 유지력 감소, 혼란된 사고 등이 경험된다. (3) 감정적 영역: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 즉, 분노, 울음, 절망과 우울, 상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질투, 동요, 혼란, 죄의식,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을 나타낸다. (4) 영적 영역: 하나님, 자기, 다른 사람, 세상의 목적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어떤 경우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한다. 영적인 위기는 분노와 혼란을 유발하거나 교회나 회중, 혹은 교회의 활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5) 사회적 영역: 사별 후에는 다양한 사회적, 사교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3) 슬픔상담의 전개

필자는 슬픔과정에 대한 접근들을 고찰하면서 슬픔과정은 충격에 대한 감정의 표현 단계, 죽음의 수용 단계, 적응과 삶의 재조직 단계로 대별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슬픔의 과정에 대한 이해'이다. 이 네 가지는 사별자를 위한 상담의 주된 과제 영역을 구성한다. 이와 유사하게 J. D. Vogelsang은 사별자의 요구에 기초한 슬픔상담의 모델을 제시하였다.⁴⁶⁾

43) H. Norman Wright, *Crisis Counseling* (Regal Books, 1977), 159.

44) H. Norman Wright, *Crisis Counseling*, 159-163.

45) Helen Wilson Harris, "Congregational Care for the Chronically Ill, Dying and the Bereaved," *Family Ministry* 14, no. 1 (Spring 2000): 36-37.

46) John D. Vogelsang, "A Psychological and Faith Approach to Grief Counseling,"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37, no. 1 (1983): 25-27.

필자는 이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각 과제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을 정리하고자 한다.⁴⁷⁾

① 슬픔의 과정이해: a. 가치 있는 사람의 상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슬퍼할 필요가 있음을 안다. b. 슬픔은 자연스런 과정임을 안다. c. 슬픔의 과정에는 어느 정도의 단계들이 있으며, 각 개인은 고유한 스케줄에 따라서 그 과정을 진행한다. d. 슬픔의 양상이 다양함을 안다. e. 슬픔의 정상적인 반응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는다. f. 삶의 재적응을 위해서는 애도의 기간이 필요함을 안다.

② 충격에 대한 감정을 표현: a. 분리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들, 즉 슬픔, 분노, 적대감, 두려움 등을 확인하고 표현한다. b. 죽은 자와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죄책감, 자기비난과 자기비하의 감정들을 표현하고 명료화한다.

③ 죽음의 수용: a. 상실의 사실을 현실화한다. b. 고인에게 행했다고 느끼고 있는 어떤 잘못들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고, 고인이 자기에게 남겨두었다고 느끼는 잘못에 대해 고인을 용서한다. c. 죽은 자를 정서적으로 재배치한다. d. 현재의 삶을 수용하고,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힘을 새롭게 인식한다. e. 고인 없이도 의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f. 더 이상 고인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자기 속에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수용한다.

④ 적응과 삶의 재조직: a. 상실에 따르는 실제적인 문제들(신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결한다. b. 슬픔의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바라보며, 삶의 의미를 재발견한다. c. 낮아진 자기긍정과 자존감을 회복한다. d. 역할 재조정과 새로운 역할을 발견한다. e. 삶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바른 행동방향이라고 느끼는 것을 자신들의 목적의식에 비추어 분별할 수 있다.

47) Daniel J. Louw, *Illness as Crisis and Challenge: Guidelines for Pastoral Care*, 191; H. Norman Wright, *Crisis Counseling*, 166-167; David K. Switzer, *The Ministry as Crisis Counselor*. 215-217; J. William Worden, *Grief Counseling: Facilitating Uncomplicated Grief* (Routledge, 1991), 35-37.

4. 통전적 죽음사역으로서의 기독교상담

죽음에 관한 기독교상담은 통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기독교 상담에서의 인간이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전인적, 관계적, 시간적 통전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⁴⁸⁾

1) 전인적 통전성

성경은 인간이 서로 다른 부분들의 복합체가 아니라 서로 나뉘어질 수 없는 통일체라고 보았다. 물론 사람에게서는 육체적인 측면과 비육체적인 측면이 있지만, 성경은 인간을 전체로서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⁴⁹⁾ H. Dooyeweerd는 기독교적 실재론, 특히 양상이론을 근거로 인간에 대한 전인적 개념을 발전시켰다.⁵⁰⁾ 이 양상이론은 인간의 다면적 차원을 밝혀주는데 기여하였다. 그는 실제의 다양한 양상들은 프리즘을 통하여 빛이 다양한 색상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함의된 중요한 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⁵¹⁾ 모든 양상들은 인간의 종교적 응집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에 응집되어 분리할 수 없는 통합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어떤 개별 양상도 다른 개별 양상으로 환원될 수 없다. 특히 인간만이 모든 양상에 참여하여 주체적 역할을 한다. 양상의 순서는 복잡도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복잡한 양상은

48) 전인적, 관계적, 시간적 통전성에 관한 논의의 전개는 김미숙, “기독교상담에 나타난 통합운동에 관한 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대학원, 2006), 162-185를 참조하라.

49) 유해무, 『개혁교의학』, 250-251; cf. A.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유희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340-349, 359-362.

50) 조성국, 『기독교인간학: 하나님의 형상인 전인적 인간』(부산: 고신대 기독교육연구소, 2000), 28; 오우닐(W. J. Ouweneel), 로퍼(Roper), 파울러(S. Fowler) 등의 최신 논의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의 양상, 2) 공간적 양상, 3) 운동의 양상, 4) 물리적 양상, 5) 생물학적 양상, 6) 지각의 양상, 7) 정의적 양상, 8) 미적 양상, 9) 논리적 양상, 10) 문화적 양상, 11) 언어적 양상, 12) 사회적 양상, 13) 경제적 양상, 14) 법적 양상, 15) 윤리적 양상, 16) 신앙적 양상

51) 조성국, 『기독교인간학: 하나님의 형상인 전인적 인간』, 28-30, 38.

덜 복잡한 다른 양상들을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가 죽음에 관한 기독교상담에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⁵²⁾

첫째, 인간이 다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양상이론은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죽음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일에 기여한다. 죽음은 단순히 신체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 등을 갖는다. 따라서 죽음을 한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간의 삶은 단편적이 아니라 총체적이며 전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상호관련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죽어가는 사람이나 사별의 문제를 다루는 상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셋째, 죽음이란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실을 의미하며, 죽음과 관련한 상담은 죽어가는 사람과 사별자의 독특한 요구에 기초해야 한다. 양상이론은 이러한 상실과 요구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죽어가는 사람이나 남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힘과 건강의 상실을 비롯하여, 직업, 수입, 가족에서의 역할, 여가, 친밀감, 자기확신, 자존심, 생동감, 미래의 꿈과 희망, 의미 있는 모든 관계와의 상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상실의 문제는 다면적 접근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옳다.

넷째, 죽어가는 사람이나 사별자를 위한 상담은 주로 그 과정을 묘사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양상이론은 그것에 더하여 내담자에게 참으로 필요한 과제(요구) 영역을 개발하는 일에 좋은 통찰을 얻게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과제-기반적 모델'이나 '다중관점 접근'은 좋은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별자를 도우는 슬픔상담에서도 그 과정적 묘사와 대처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별자의 다양한 요구와 과제 영역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양상이론에 의하면 양상의 순서는 복잡도에 의해서 결정되며 상위영역은 하위영역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하위영역이 덜 중

52) 김성수, "기독교상담과 세계관", 기독교상담연구소, 「복음과 상담」 26 (2002, 여름): 23-27.

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물학적 삶의 문제는 윤리적이거나 신앙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깊이 관여되며, 어떤 면에서는 기초가 된다. 예를 들면, 특별히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실은 자기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즉 하나님과 세계를 바라보던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다.⁵³⁾ 상위영역은 하위영역을 인도하는 지도적 기능을 감당하므로 신앙적 영역의 삶은 그 보다 아래에 있는 삶의 모든 영역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앙적인 문제의 해결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영역의 문제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슬픔, 상실, 죽어감을 다루는 기독교상담에서 양상이론은 내담자의 삶에 있어서 하위영역의 기초적 역할과 상위영역의 인도적, 지도적 기능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2) 관계적 통전성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며 인간회복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는 필연적으로 내적인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N. Wolterstorff는 샬롬이라는 개념으로 이 관계들을 묶어주고 있다. 그는 샬롬을 하나님, 다른 사람들, 세상(환경),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라는 네 가지 관계에서 올바르게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그 관계 속에서 즐기는 삶을 의미한다고 말한다.⁵⁴⁾ 관계적 통전성이 죽음에 관한 상담에 주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모든 문제는 '관계의 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상담에서는 관계적 통전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53) Dan P. Moseley, "Dealing with Loss in Ministry," *Encounter* 61, no. 4 (Autumn 2000): 37.

54) Nicholas Wolterstor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83), 70.

특별히 더 중요하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죽음의 공동체성 회복을 요구한다. 우리는 죽음을 철저히 개인화시키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이나 남은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들이 홀로 있지 않고 돕는 사람들이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참된 위로는 우리를 위로의 공동체로 부르고 있다.

둘째, 관계적 통전성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인간이 갖는 여러 가지 관계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에 우선하고 근본적이어서 다른 관계들의 기초를 형성하며 다른 관계들을 지배한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문제들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그 속성상 영적이라는 것이다. 남은 사람을 위한 슬픔상담에서 심리적인 지지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적 기독교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참된 소망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죽음의 관계적 통전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곳은 교회이다. 효과적인 위기상담의 필수적인 조건은 안정된 소속감, 활용가능성, 기동성, 그리고 상담절차의 융통성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은 전통적인 심리치료자들 보다는 훈련된 목회자와 회중이 더 잘 갖추고 있다.⁵⁵⁾ 그러므로 위기상담에 있어서 교회는 위에서 말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넷째, 사별은 가족체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족구성원의 죽음은 그 체계의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의미한다. 맞물린 역할들, 관계들, 상호작용들, 의사소통, 그리고 정신병리학과 요구들은 그의 죽음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충족될 수 없다. 과거의 가족 단위는 사라지며, 새로운 가족 시스템이 구성된다. 죽음은 개별적 구성원과 각각의 하위체계의 위기일 뿐 아니라 가족 단위

55) Howard W. Stone and Geoffery Peterson, *Crisis Counseling*, 오성춘 역, 『위기상담』 (서울: 기독교출판사, 1986), 89-90.

의 위기가 된다.”⁵⁶⁾ 그러므로 죽음상담을 위해서는 가족단위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관계적 통전성의 다른 측면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도 공동체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아 있는 자에게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남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다. 그들의 삶의 승리는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힘과 용기를 주며 다시 기억될 것이다. 기독교상담자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의미와 용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과 영원의 중요성, 사랑과 삶의 의미에 대하여 올바르게 생각하게 만듦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었다.”⁵⁷⁾

여섯째,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더불어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맥락에서 형성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상담의 행위 속에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뿐 아니라, 상담자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와 내담자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중재가 중요한 구조를 이룬다. 따라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맺어 나가는 관계의 질과 내용은 이러한 관계적 통전성을 확대해 나가는 통로가 된다. 죽음의 상담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곱째, 기독교상담의 핵심은 바로 상담자 자신이다. 기독교상담자의 세계관, 가치관, 개인적인 경건, 인격, 삶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죽음을 다루는 상담자는 그 자신 속에서 통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기독교상담자의 내적 통전성은 죽음을 관계적 통전성 속에서 다루는 일에 기여하게 된다. 상담자의 내적 통전성을 위해서는 이론과 실천의 통합, 믿음과 삶의 통합, 전문적 삶과 일상적 삶의 통합이 필요하다.⁵⁸⁾

56) B. Raphael, *The Anatomy of Bereavement. A Handbook for the Caring Professions* (London: Hutchins, 1984), 54.

57) 최재락, “죽음의 인간화를 위한 교육적 상담”,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선교」 27 (2002): 400-401.

58) 김미숙, “기독교상담에 나타난 통합운동에 관한 연구”, 155-162.

3) 시간적 통전성

시간적 통전성이라는 개념은 다소 새로운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과거와 미래가 구분된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이란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도 아니며, 언제나 과거와 미래는 현재 속에 통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담을 수행하는 현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기 보다는 통전적 관점으로 그것들의 상호관련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미래적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이란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므로 시간을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는 기초가 된다. 또한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기도 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 반영된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미래의식과 관련된 것이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을 제안한 W. J. Heard는 미래적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함으로써 시간의 통전성을 취급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미래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의미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⁵⁹⁾ 특히 고난이나 죽음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시간적 통전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아주 중요하다. Charles V. Girkin은 “위기 경험에 따르는 문제의 대부분은 연속감의 상실인데, 그것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열려진 미래로 움직여 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동반한다.”⁶⁰⁾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59) Warren J. Heard, Jr., “Eschatologically Oriented Psychology: A New Paradigm for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in *God and Culture: Essays in Honor of Carl F. H. Henry*, eds. D. A. Carson & H. D. Woodbridge (Grand Rapids: Eerdmans, 1993), 125–126.

60) Charles V. Girkin, *Living Human Document: Re-Visioning Pastoral Counseling in a Hermeneutical Mode*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33.

가능성 있는 미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미래가 단지 똑같은 부정적 사건들의 반복일 뿐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이다.⁶¹⁾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을 미래 속으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그것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를 새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회상하는(re-collect) 과거에 따라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그리는(pro-ject) 미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who we have been”)와 현재의 우리(“who we are now”)와 미래의 우리라고 상상되는 우리(“who we imagine we are becoming”)와 분리될 수 없다.”⁶²⁾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오늘을 힘 있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기독교상담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직면하는 위기와 고난의 경험과 고통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Louw는 목회적 치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약속치유’(promissio-therapy)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⁶³⁾ 죽어가는 사람과 남은 사람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하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소망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비록 고난 가운데서도 신자들은 종말론적인 희망 가운데 살기 시작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취된 약속과 그의 신실성을 기초하여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산다. 비록 극히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새로운 비전과 관점을 계속 가져다 줄 수 있는 미래의 기대 속에서 살기 시작한다. 소망의 역동성과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난을 미래를 향하여 초월하게 한다. 이러한 초월의 능력과 기대의 과정은 신앙 안에서의 성숙을 향한 성장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다...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61) Andrew D. Lester, *Hope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78.

62) Andrew D. Lester, *Hope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36.

63) Daniel J. Louw, *A Pastoral Hermeneutics of Care and Encounter*, 444.

된다. 그것은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승리를 시위하는 찬양과 예배의 태도를 암시한다.”⁶⁴⁾

이상과 같이 죽음사역에 대한 전인적, 관계적, 시간적 통전성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다른 어떤 사역보다 죽음사역이야말로 이러한 통전성 속에서 구성되고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죽음상담은 성경적, 신학적 토대 위에서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결과를 활용함과 동시에 통전적 죽음사역에서 논의한 방향을 고려하면서 전개해 나갈 때, 보다 온전하고 정교한 죽음상담의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III. 닫는 글

본 연구에서는 통전적 기독교죽음상담의 정립을 위한 원리적인 시도를 수행하였다. 기독교상담이 왜 죽음의 문제를 핵심 주제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찰하였고, 이어서 죽어가는 사람과 남은 사람을 위한 기독교상담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통전적 기독교죽음상담을 위한 시도로서 전인적, 관계적, 시간적 통전성과 죽음상담의 관련성 및 그것의 함의점을 밝혀 보았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기독교죽음상담의 중심에는 상담자가 있다. 죽음에 관한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소망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상담자는 부활과 생명의 소망으로 무장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역을 따라가야 한다.

둘째, 기독교죽음상담은 통전적인 관점에서 구성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전인적, 관계적, 시간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셋째,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상담이나 남은 사람을 위한 상담에서는 전통

64) Daniel J. Louw, *Meaning in Suffering: A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for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0), 198.

적으로 단계론이 그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단계론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죽음과 슬픔에 처한 사람의 과제와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감안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과정적 모델과 과제 중심적 모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는 참된 위로가 있다.⁶⁵⁾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죽음의 현실 앞에서 고통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기독교상담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축복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요1 4:18).

65) 이 이야기는 필자가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읽은 것으로 Ernst Sieber 목사가 쥐리히에서 발간되는 Tagblatt에 칼럼으로 쓴 것을 옮긴 것이다. “한 작은 마을에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다. 초겨울이 시작되는 때, 소녀에게는 한 가지 열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한번만 더 성탄절을 지내고 죽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 마을의 주민들과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하였고, 드디어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 해의 성탄절을 12월 2일에 지키는 것이었다. 소녀의 아버지와 선생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생각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고 온 마을이 성탄준비를 시작하였다. 마을의 이름난 빵집은 하트모양의 빵을 일찍 구워냈고, 해마다 성탄절이면 진열장을 장식하던 초콜렛으로 만든 큰 배를 미리 내어 놓았다. 모든 가게와 상인들이 그들의 성탄을 준비하였고,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을의 목사님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길거리 마다, 교회당과 집집마다 모든 것은 준비되었고 그 해의 성탄절은 이렇게 12월 2일에 지켜지게 되었다. 성탄의 축하가 끝나고 이틀 뒤에 그 소녀는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 이야기는 스위스의 유라 마을에서 1958년에 일어난 이야기이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소녀를 위해서 주저 없이 성탄을 앞당겼고, 12월 25일이라는 고정된 날짜를 취소하였다. 주님의 오심과 임재는 언제나 가능한 것이며 그 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에서 성탄의 축하는 한 개인의 것만이 아닌 마을의 축하가 되었다. 이것은 온 마을이 그 소녀의 삶과 죽음을 공유하였다는 뜻이다. 이 이야기는 성탄의 축하가 죽어가는 한 생명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생명과 성탄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 성탄은 언제나 생명의 사건이다. 이 이야기에서 소녀에게 전해진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필자는 소녀에게 제공된 마지막 성탄절이 ‘죽음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고통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숨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짐져 주시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강용원. “기독교상담의 성격과 구성”.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기독한교, 2004: 371-445.
- 김균진. “죽음에 대한 의식의 차원들”.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현대와 신학」 26 (2001): 58-82.
- 김기복. “죽음과 임종 - 그 목회관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자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 10 (1990): 123-132.
- 김미숙. “기독교상담에 나타난 통합운동에 관한 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2006.
- 김성수. “기독교상담과 세계관”. 기독교상담연구소. 「복음과 상담」 26 (2002. 여름): 8-32.
- 박노권. “기독교의 죽음이해에 대한 상담학적 고찰”. 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기독교상담 학회지」 10 (2005. 10): 171-196.
- 사미자. “죽음의 문제에 관한 소고”. 「교육교회」 111 (1985): 255-264.
- 유해무. 『개혁교의학: 송영으로서의 신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조성국. 『기독교인간학: 하나님의 형상인 전인적 인간』. 부산: 고신대 기독교육연구소, 2000.
- 최재락. “사별과 목회상담”. 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기독교상담학회지」 7 (2004. 7): 313-339.
- 최재락. “죽음의 인간화를 위한 교육적 상담”. 서울신학대학. 「신학과 선교」 27 (2002): 397-420.
- Evans, Orville. “A More Excellent Way.”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7, no. 3 (1984): 34-49.
- Corr, Charles A., Nabe, Clyde M. and Corr, Donna M. *Death & Dying, Life & Living*. Pacific Grove. CA: Brooks/Cole, 1997.
- Kastenbaum, Robert J.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 Boston: Pearson, 2007.
- Kübler-Ross, Elisabeth.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1969.
- Leming, Michael R. & Dickinson, George E. *Understanding Dying, Death, and Bereavemen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5.

- Louw, Daniel J. *A Pastoral Hermeneutics of Care and Encounter*. Wellington: Lux Verbi.BM, 1998.
- Louw, Daniel J. *Illness as Crisis and Challenge: Guidelines for Pastoral Care*. London, Orion, 1994.
- Louw, Daniel J. *Meaning in Suffering: A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for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0.
- Switzer, David K. *The Ministry as Crisis Counselor*. 김진영 역. 『위기 상담가로서의 목회자』.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 Abstract 】

An Essay on Holistic Christian Counseling with regard to Death

Yong—Won Kang
Kosin University

Death, which is an unavoidable reality, is the central topic in the Christian counseling. It is because that the ministry on death is above all to reveal the cross of Christ and the gospel truth. Christian counselor, equipped with biblical and psychological knowledge on death, must be able to help the bereaved to overcome their agony and hopelessness to experience restoration and hope. This research will discuss why death is an essential subject in Christian counseling, based on the meaning of death in the Scripture. Furthermore, this research deals with general principles of Christian counseling on death. Especially it will discuss and evaluate various theories and practical principle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the dying and for the bereaved, which are two subjects in death. This researcher emphasizes that Christian counseling in death must be approached holistically, and offers a direction toward which Christian counseling needs to follow with regard to death in ministry based on the concept of human as a holistic being, human as a holistic being—in—relationship, and human as a holistic being—in—time. It is made clear in this paper that Christian counseling with regard to death must be not only a task for Christian counselors, but also for the entire members of a church.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with regard to death, death, dying, bereavement, grief counseling, holistic ministry

